

향긋한 기도로 여는 새봄

수천 명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2017년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개최 소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3)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응답받을 그릇, 준비되셨나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소원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본다.

“내 소망 되신 주님~”

기도 중 성령의 불을 받고 치료 역사를 체험한 김은희 집사와 선천성 입파부종을 치료받은 콩고민주공화국 레제르마 아동의 간증.

# 만민뉴스

제776호 2017년 2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2월 20일부터 6주간 진행



전 세계 수많은 성도가 GCN방송과 인터넷 등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다니엘철야'를 통해 응답과 축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히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마지막 날에는 행복한 시상식도 있다.

2017년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2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42일간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본당을 비롯, 2·3성전에서 진행된다. 매일 밤 9시부터 11시 40분까지(토·일은 11시까지, 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로 대체) 하늘 보좌를 올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기 바란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21일 만에 응답이 주어진 것(단 10:12~14)을 근거로 '다니엘철야'라 부르게 되었다. 주관부서인 만민기도원에서는 지속적으로 21일 단위로 주제를 정하여 주최하는데, 1년에 전·후반기 두 차례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로 진행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2017년 전반기 기도회의 주제는 '목자의 눈물의 열매'이다.

매일 밤 오후 8시 40분부터 준비찬양이 시작되며, 기도회 첫째 날인 2월 20일에는 전화 연결을 통해 상상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다. 마지막 날인 4월 2일에는 시상식으로, 이날에는 이재록 목사의 축복기도

와 함께 40일 이상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하여 예쁜 보석 벽시계를 선물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추첨한 한 명에게는 대상이 주어진다.

국내외의 1만 1천여 지·협력교회 성도들은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함께할 수 있으며, 일부 해외 지교회는 시차 관계로 녹화방송을 통

해 참여한다. 그동안 기도회에 동참한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며 가족 복음화, 사업터 축복, 치료 등 각종 문제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4면 참조).

한편, 우리 교회 성도들은 1982년 개척 때부터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매일 성전에 모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해 왔다. 그 결과 개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책자와 신문, 방송을 통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하며 개척 35년 만에 1만 1천여 지·협력교회를 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 참된 주의 종과 선교사, 레위족과 일꾼 양성 및 배출

지난 2월 15일(수) 오전 11시, 제25회 연합성결신학교 및 제10회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교무처장 이종원 박사의 사회, 이사 이정호 박사의 대표기도,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소리선교단'의 특송에 이어 학장 김상태 박사는 '작은 것에서부터'(고후 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후 학사보고에 이어 총장 정구영 박사가 졸업증서를 수여한 뒤 이사장 상패는 이관규 교육전도 사에게(사진), 총장 상패는 이지영 교육전도사에게 수상하였다.

그동안 참된 주의 종과 선교사, 레위족(교회 상근 직원)과 일꾼 양성 및 배출에 힘써 온 결과, 제25회 연

합성결신학교 졸업생들은 이미 해외 선교사를 비롯 지교회 교역자, 본교회 교구장 및 지도교사 외에도 교계 담당자 및 레위족으로 사역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구영 박사가 총장으로 취임하여 더 많은 주의 종과 일꾼 배출은 물론, 어학을 비롯

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1, 2학년은 믿음 성장과 실력 배양 등의 시간으로 통합 운영되며, 3학년이 되면 주의 종, 선교사, 레위족, 평신도 일꾼으로서의 진로가 결정되고, 4학년이 되면 인정받는 만큼 보직과 부서 발령으로 더욱 실력을 쌓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 신속히 응답받기 위한 그릇 준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 3:21~22)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 응답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속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본다.

## ◆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을 보여 주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믿음을 가져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변질되어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가복음 17장 11~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셨지만 아홉은 떠나 버리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이 치료받으면 대부분 마음이 변질되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만을 갖춰야 한다.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확실히 서야 참된 응답과 축복이 따르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귀신 들린 경우,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부모나 가까운 가족이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간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나 가까운 가족은 천국을 알고 진리를 알았으니 죄를 버리고 성결되기 위해 힘쓰며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여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주 안에서 신앙이 바로 정립되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확실히 세워져야 한다.

## ◆ 마음 깊이 느끼는 진실한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참된 사랑과 진실을 느꼈으며, 그런 분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받은 것과 같았다.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함이 변하지 않았다. 이런 중심이었기에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고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고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며 무엇보다 성결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영적인 믿음을 구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진정 사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해도 실망하거나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는다.

만일, 선천적으로 불구인 사람이 응답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불구된 몸을 고치시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이론 속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세상 지식과 이론이 남아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나도 치료받는다.'라는 믿음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공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모든 면에서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계산적인 면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을 주었으면 하나님을 받으려 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만큼 보답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한다. 하나님께도 이만큼 심고 노력했으니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기대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은혜가 임한다고 느끼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곤고해진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라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신다. 믿음과 사랑으로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심을 때 누르고 흔들려 넘치도록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신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는...'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고 '어찌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부지런히 살피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니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 ◆ 죄의 담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

구약에 보면 악한 영과 교통하여 신접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서 죽임으로 그 백성 중에서 완전히 멸하도록 명하셨다(레 20장 ; 신 13, 17장). 심히 우상 숭배를 해 온 가정은 시험 환난과 각종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출 20:3~6). 하나님을 믿게 되어도 신앙생활에 휘방을 받아 예배시간만 되면 졸음으로 빠지거나 수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한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가시처럼 자리 잡아 고통 속에 살기도 한다.

더구나 악한 영과 접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하거나 영혼을 사고 판 경우는 하나님 주권을 침범해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버렸기에 더욱 심각하다. 하나님 진노가 크게 임해 악한 영들도 이런 사람은 자신의 소유로 여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해도 쉽게 놓아주지 않고 심히 휘방한다.

이러한 죄의 담이 크게 쌓인 경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축복이다. 크신 축복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기도와 예배의 단을 쌓으며 믿음으로 행해 나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해 주신다. 이 밖에 죄악으로 담을 심히 쌓은 사람은 남보다 몇 갑절 노력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계속 간구할 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마침내 응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목자의 권능
- 마음발을 개간하자 1
- 육체의 결여 7-10
- 성경적 결혼관 2
- 요한일서 강해 1-2
- 일곱교회 13-18
- 요한계시록 강해 1-3
- 축복 1-2
- 창세기 강해 102-105
- 십계명 1
-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1-4

GCN TV설교

- 육과 영 4-8 (이수진 목사)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2 (이미영 목사)
- 꿈은 마음 3 (이미경 목사)
- 목자님의 열매 (이희선 목사)
- 읊기 강해 19 (신동초 목사)
- 유월절 2 (정구영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4
- 권능 스페셜 4
- 마지막 때 6
- 창조와 과학 13
- English 13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55
- 내 마음의 찬양 26
- 모두 드려요 48

해외성회 프로그램

- 화상 3
- 페루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4

2017.2.19~2.25 주요프로그램안내

GCN TV 채널 ktolleh tv 882번



## “성령의 불로 평생 앓던 천식성 만성 기관지염과 10년 된 3개의 자궁 근종이 사라졌어요!”

김은희 집사 (57세, 3세대 29교구)



직장생활 한다는 핑계로 기도에도 소홀했던 저는 “기도생활은 꼭 하셔야 해요.” 하시는 교구장님의 권면을 들으며 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출산으로 육아를 돕느라 직장을 쉬게 되면서 재작년부터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보니 기도의 맛을 조금씩 알게 되었지요.

2016년 10월 10일부터 21일씩 ‘2회 연속’으로 진행되는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유난히 사모되어 참석하였습니다. 천식성 만성 기관지염으로 두 달 가까이 기침이 계속되다 보니 급기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소원하며 매일 경기도 산본에서 서울 구로동 본당까지 버스와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참석하였지요. 하지만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교회에 도착하면 안내실 옆 무안단물터에 가서 정성스럽게 권능의 무안단 물을 마신 후 기도에 임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흥역을 앓은 뒤로 천식성 만성 기관지염이 발병하여 한번 기침을 시작하면 몇 달씩 멈추

지 않으니 평생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처음 21일간은 기침 때문에 소리 내어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참으로 답답하게 보내야 했지요.

하지만 2회 다니엘철야가 시작된 10월 31일, 제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설 때부터 마음이 너무 행복했는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해 울컥울컥 눈물이 나더니 준비찬양 때부터 통회자복이 임했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며 혈기를 내는 등 제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였지요. 순간 성령의 불덩이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태우며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기침이 멈추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저는 너무 기뻐 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행복하게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이뿐 아니라 12월 7일에는 제 몸에 벌어진 놀라운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궁근종 정기검진을 받으러 삼성서울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초음파검사 결과 근종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의사 선생님에게 그럴 리 없다며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하였는데, 의사 선생님은 다시 보아도 없다고 하였지요. 그 순간 지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때 성령의 불을 받은 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자궁 근종 3개가 있었는데, 크기가 1 cm에서 3 cm로 커져 조금 더 커지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였기에 제 마음은 또다시 진행되는 2017년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를 앞두고 기쁨으로 설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더욱 충만히 달려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매일 밤 뜨겁고 충만한 다니엘철야를 인도해 주시는 이복님 원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레제르마 아동 (11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 “잘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선천성 임파부종으로 인해 저는 어려서부터 왼쪽 다리가 심하게 붓고 진물이 났습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지체장애원에 데리고 다니셨고, 저는 늘 약을 먹어야 했지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 놀고 싶었지만, 늘 다리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요. 누군가

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에도 혼자 갈 수가 없

어서 학교도 외할머니가 도와주셔야 갈 수 있었지요. 그나마 다리가 너무 아픈 날은 아예 학교에 가지도 못했어요.

작년 9월, 외할머니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한국 목사님이 오시니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함께 가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

에 가서 이희선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받은 후 제 다리가 예전과 너무 달라졌어요. 힘이 주어져 혼자서도 걸을 수 있었고, 더 이상 통증도 없었지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후 다리의 부기도 많이 빠져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고 축구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엄마와 외할아버지도 교회에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46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이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